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1-(1)
형태론
(단어)

품 사

[05년 3월 고3 13번] <보기>는 띄어쓰기 사례를 사전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 기>

- 어제 ㉠ 김 사장과 만났다.
- 자동차가 ㉡ 쓴살같이 달린다.
- 구름에 달 ㉢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명주는 ㉣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 정직한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① ㉠로 보아, '박 과장, 이 대리'라고 써야 할 거야.
- ② ㉡처럼 '쓴살같이'를 붙여 쓰니까, "부모님과같이 가다."의 '부모님과같이'도 붙여 써야 해.
- ③ ㉢의 사례로 볼 때, '비 온 후에 죽순이 돋듯이'의 '돋듯이'도 붙여 써야 해.
- ④ ㉣로 보아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의 '너만큼'도 붙여 써야 해.
- ⑤ ㉤의 사례로 볼 때, '아름다운 꿈, 맛있는 사람'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아.

[05년 9월 고3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助詞)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보 기>

-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 ㄷ.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 ① ㄱ의 '께서, 예'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06년 6월 고3 14번]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3)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 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나?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07년 수능 13번]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4)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내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07년 3월 고3 11번]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잘못 말한 사람은? 5)

<보 기>

선생님 :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있다'와 '없다'는 다른 용언과 달리 활용 방식이 특별합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여 '있다'와 '없다'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 어간과 어미의 결합 방식 ※

결합 가능 : ○, 결합 불가 : ×

	㉠	㉡	㉢
	현재형 관형사형어미 '-는'	감탄형어미 '-구나'	칭유형어미 '-자'
동사	○	×	○
형용사	×	○	×

- ① 철현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② 영미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③ 동국 : ㉢로 보아 '없다'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④ 선경 : ㉢로 보아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 ⑤ 광민 : ㉢로 보아 '없다'도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07년 4월 고3 11번]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6)

<보 기>

'무엇'이라는 대명사는 ㉠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나 정하지 않은 대상이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 ① 화단에 있는 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
- ② 배가 고프니 무엇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 ③ 남자는 무엇을 증언이라도 하듯 가다듬은 목소리를 냈다.
- ④ 꿈속에서 무엇에 쫓길 때처럼 다리가 제대로 놀지 않았다.
- ⑤ 그는 세간이고 무엇이고 하나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있었다.

[07년 4월 고3 12번] <보기1>은 '~에서'에 대한 뜻풀이의 일부이다. <보기2>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용례를 찾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보 기 1>

㉠. 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보 기 2>

a.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b.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c.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d. 그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일이다.
 e.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 | | ㉠ | ㉡ | ㉢ |
|---|------|------|------|
| ① | a, b | c | d, e |
| ② | a, c | b, e | d |
| ③ | a, d | b, c | e |
| ④ | b, c | d, e | a |
| ⑤ | d, e | a | b, c |

[07년 6월 고3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이+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이(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티고기(돌+이+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⑤ '닭고기'의 옛말은 '들기고기(들+이+고기)'라고 했겠군.

[07년 6월 고3 12번]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9)

<보 기 1>

- '-마는' :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 기 2>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러무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7년 7월 고3 11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10)

<보 기 1>

- 격조사 : 문장 속에서 체언이 서술어나 다른 체언과 가지는 관계를 표시해 주는 조사
- 보조사 : 체언이나 부사 등의 뒤에 결합하여 특수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특히, '은/는'은 다음과 같은 뜻을 더해줌

1.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2.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냄
3. 강조의 뜻을 나타냄

<보 기 2>

(가) 그 아이들은 밥 먹을 때 김치는 꼭 찾는다.

(나) 영수는 수학은 잘 하지만 국어는 잘 하지 못한다.

(다)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 ① (가)의 '은'은 격조사가 놓이는 자리에 쓰였군.
- ② (나)의 '국어는'의 '는'은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군.
- ③ (다)의 '는'은 격조사로 바꿀 수도 있겠군.
- ④ (다)의 '는'은 강조의 뜻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은/는'은 그 앞의 말에 받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되는군.

[07년 9월 고3 12번]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 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1)

<보 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짓혀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찼다.
→ **푸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07년 10월 고3 11번] <보기>는 문법 수업 중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것은? 12)

<보 기>

선생님 : 부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와 같은 부사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문장 내의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는 형태를 바꾸어서 서술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사를 찾아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볼까요? 다음 예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가. **의외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의외로** 성실하게 일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의외로**.

나.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니 **의외였다**.

- ① 연우 :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 ② 세현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③ 서진 : 나는 눈발에서 **데굴데굴** 굴렀다.
- ④ 정연 : 요새는 **너무** 바빠서 등산을 못 한다.
- ⑤ 은우 : 나는 배가 아파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다.

[08년 6월 고3 모평 11번]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 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 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09년 수능 11번]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4)

<보 기>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꿔야 해.

[09년 4월 학평 12번]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

<보 기>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ㄴ’과 ‘지’는, ‘-ㄴ지’와 ‘-ㄴ 지’의 형태를 이루어 쓰인다. 전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 명사 ‘지’로 쓰이는 경우이다. ㉠ 이처럼 어미와 의존명사가 겹으로 볼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미리 자 들걸.
 후회할 걸 왜 그랬니?
- ② 집에 가서 다시 연락할게.
 학교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 ③ 이렇게 보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그 친구를 십 년 만에 만났다.
- ④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⑤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09년 6월 모평 12번]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 16)

<보 기>

아 들 :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뭘,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글쎬, 사 줘야 되나?
 아 들 : 사 주세요, ㉣예?
 아버지 :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 거지?
 아 들 : 그런데, ㉤음,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거 아니냐고.
 아 들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글쎬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방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이는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10년 10월 학평 12번]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7)

<보 기>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온단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11년 4월 학평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형과 준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보 기>					
	어간	어미		활용형	준말
ㄱ.	흔하-	+ -지	→	흔하지	흔치
ㄴ.	섭섭하-	+ -지	→	섭섭하지	섭섭지
ㄷ.	이러하-	+ -지	→	이러하지	이렇지
ㄹ.	삼가-	+ -지	→	삼가지	×

- ① ㄱ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이 어미의 첫소리와 결합한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② ㄴ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가 탈락한 경우에 해당하는군.
- ③ ㄷ의 준말은 활용형의 어간에서 '하'의 'ㅏ'가 탈락하고 'ㅎ'이 앞 음절 끝소리로 붙은 경우이군.
- ④ ㄱ과 ㄴ의 준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미의 첫소리와 관련이 깊겠군.
- ⑤ ㄱ~ㄷ과 달리 ㄹ에 준말이 없는 것은 어간에 '하'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12년 3월 학평 12번]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

<보 기 1>

인칭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화자인지, 청자인지, 화자와 청자 이외의 제삼자인지에 따라 각각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로 나뉜다. 이 중에 삼인칭 대명사에는 미지칭(未知稱) 대명사, 부정칭(不定稱) 대명사, 재귀대명사가 포함된다. 미지칭 대명사는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할 때, 재귀대명사는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를 지칭할 때 쓰인다.

<보 기 2>

초인종이 울린다. “계세요?”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아 들: ㉠ 누가 왔는지 ㉡ 제가 나가 볼게요. (현관으로 나가며) ㉢ 누구세요? (문을 열어 상대방을 확인한다.)

우체부: 택배 왔습니다.

아 들: (물건을 건네받아 확인하고) 할머니께서 ㉣ 당신이 손수 말리신 꽃감을 보내셨네요. 아버지, 꽃감 좀 맛보실래요?

아버지: ㉤ 내가 먼저 먹으렴. 난 이따가 먹을란다.

- | | | |
|--------------|--------------|--------------|
| ① ㉠: 부정칭 대명사 | ② ㉡: 일인칭 대명사 | ③ ㉢: 미지칭 대명사 |
| ④ ㉣: 재귀대명사 | ⑤ ㉤: 이인칭 대명사 | |

[13년 3월 학평 A형 12번]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 20)

<보 기>

품사의 분류 기준

- 형태에 따라 : 가변어, 불변어
- 기능에 따라 :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 의미에 따라 :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예문

- 호수가 깊다.
-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기준	분류 (* '/'은 분류의 경계를 표시함)
①	형태	깊다, 깊이 / 호수, 가, 강, 의, 는, 누구, 도, 모른다
②	기능	깊다, 모른다 / 호수, 강, 깊이 / 누구 / 가, 의 / 는, 도
③	기능	깊다, 모른다 / 호수, 강, 깊이, 누구 / 가, 의, 는, 도
④	의미	깊다, 깊이 / 모른다 / 호수, 강 / 누구 / 가, 의, 는, 도
⑤	의미	깊다 / 깊이 / 모른다 / 호수 / 강 / 누구 / 가 / 의 / 는 / 도

[13년 4월 학평 A형 13번]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21)

<보 기>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	어미의 기본형태	→	
	걸-	+	-고	→	걸고
		+	-아/어	→	걸어
		+	-아라/어라	→	걸어라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예시>	어간	+	어미의 기본형태	→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이르러
		+	-아서/어서	→	이르러서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13년 7월 학평 B형 13번] 다음의 ㉠, ㉡에 들어갈 용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2)

학 생 :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모았니?'라고 할 때, 여기서 '걸'은 띄어 써야 하나요?

아니면 붙여 써야 하나요? '걸'은 앞말에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해서 혼란스러워요.

선생님 :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아요. '걸'은 '것을'을 구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여기서 '거'는 의존명사 '것'에 해당하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겠지요. 그런데 '걸'이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 '걸'은 '-ㄴ걸, -는걸' 등과 같은 어미의 일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용례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	㉡

- ① ㉠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 ② ㉡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 ⑤ ㉠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13년 10월 학평 B형 13번]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3)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 실은(O) 것이 뭐니? ○ 시들은(X) / 시든(O) 꽃 한 송이가 있다. <p style="text-align: right;">* O : 어문 규정에 맞음, X : 어문 규정에 어긋남</p>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규정에 따를 때, '시다'처럼 어간 끝이 'ㄷ'인 용언과 '시들다'처럼 어간 끝이 'ㄹ'인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탐구	<p>㉠ '실은', '시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분석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은 → 실- (어간) → -은 (어미) ○ 시든 → 시들- (어간) + -ㄷ(어미) <p>㉡ 유사한 사례를 찾아 분석해 본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예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활용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형태소 분석</th> </tr> </thead> <tbody> <tr> <td>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O) 소리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듣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들은</td> <td style="text-align: center;">듣- + -은</td> </tr> <tr> <td>정성을 쏟은(O)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쏟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쏟은</td> <td style="text-align: center;">쏟- + -은</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예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활용형</th> <th style="text-align: center;">형태소 분석</th> </tr> </thead> <tbody> <tr> <td>그가 내밀은(X) / 내민(O) 손을 잡지 못했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민</td> <td style="text-align: center;">내밀- + -ㄷ</td> </tr> <tr> <td>부풀은(X) / 부푼(O) 꿈을 안고 왔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풀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푼</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풀 + -ㄷ</td> </tr> </tbody> </table>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O) 소리다.	듣다	들은	듣- + -은	정성을 쏟은(O)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 + -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X) / 내민(O)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 + -ㄷ	부풀은(X) / 부푼(O)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 + -ㄷ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이것이 바로 내가 들은(O) 소리다.	듣다	들은	듣- + -은																									
정성을 쏟은(O) 일은 실패하지 않는다.	쏟다	쏟은	쏟- + -은																									
예문	기본형	활용형	형태소 분석																									
그가 내밀은(X) / 내민(O) 손을 잡지 못했다.	내밀다	내민	내밀- + -ㄷ																									
부풀은(X) / 부푼(O) 꿈을 안고 왔다.	부풀다	부푼	부풀 + -ㄷ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간 끝이 'ㄷ'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하면 'ㄷ'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 . ○ 어간 끝이 'ㄹ'인 용언은, 관형사형 어미 '-ㄷ'이 결합하면, ㉡ . 																											

- | | | |
|---|---------------|------------|
| | ㉠ | ㉡ |
| ① | 'ㄷ'이 'ㄹ'로 교체됨 | '-은-'가 삽입됨 |
| ② | 'ㄷ'이 'ㄹ'로 교체됨 | 'ㄹ'이 탈락함 |
| ③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 ④ | 'ㄷ'이 탈락함 | 'ㄹ'이 탈락함 |
| ⑤ | 어간의 형태가 바뀜 | 어미의 형태가 바뀜 |

[13년 수능 B형 14번]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4)

<보 기>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
 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단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14년 3월 학평 A형 12번] <보기>의 ㉠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5)

<보 기>

동사는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밝다'의 경우, '달이 밝다'에서는 '환하다'의 의미로 쓰여 형용사가 되고 '날이 밝는다'에서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다'의 의미로 쓰여 동사가 된다.

- ①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긴 겨울방학이 끝났다.
- ② 나이보다 얼굴이 **젊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다.
- ③ 봄바람이 **따뜻하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
- ④ 나는 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리 아들은 키가 **쑥쑥 크다**.
- ⑤ 외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다**.
그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진학했다.

[14년 4월 학평 B형 12번]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 ~ (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6)

<보 기>

[질 문]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변]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4년 4월 학평 B형 14번]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7)

가 [조]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不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르'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조]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不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보 기>

- ㉠울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
-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넓은 갈대밭이 모두 ㉣뽕밭이 되었다.
- 나는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개[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개[1][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③ ㉢의 ‘가’는 ‘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개[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 [1][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14년 4월 학평 A형 13번]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8)

<보 기>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의 병이 낮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낮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울다.
시합에 진 어린이가 울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14년 6월 모평 B형 15번]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 ~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 29)

[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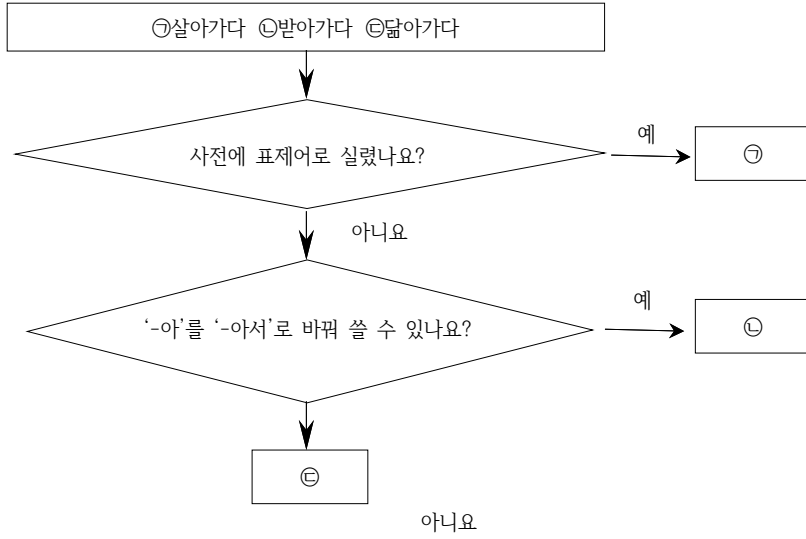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닿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	㉢
①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닿아 가다 또는 닿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닿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닿아 가다
④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닿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닿아 가다 또는 닿아가다

[14년 6월 모평 A형 1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0)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한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14년 7월 학평 B형 11번] 다음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사례로 적절한 것은 ? 31)

의문	‘자리를 <u>바뀔</u> (O) 앉았다’와 ‘잔금을 <u>치르</u> (X) 두었다’에서 ‘바뀔’과 달리 ‘치르’의 표기가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탐구	(1) 각 단어의 기본형을 찾아 활용 형태를 분석해 본다. ○ 바꾸-(다) + -어 → 바꾸 ○ 치르-(다) + -어 → 치르 (2) ‘치르’와 같은 형태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
↓	
결과	‘치르다’를 ‘바꾸다’와 같이 어간이 ‘누’로 끝나는 사례와 혼동하였기 때문이다. ‘치르-’는 어간이 ‘-’로 끝나는 용언이므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한다.

- ① 할머니께서 아침에 동생을 깨워 주셨다.
- ② 그는 자물쇠로 책상 서랍을 잠가 놓았다.
- ③ 오늘은 가족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 ④ 언니의 얼굴이 오늘따라 몹시 하얗 보였다.
- ⑤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다.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1-(2)
형태론
(단어)

형태소

[05년 6월 고3 13번]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2)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대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06년 6월 고3 13번]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33)

<보 기>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1-', '-답2-'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1-'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2-'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1-'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2-'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1-'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2-'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답1- | -답2-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07년 수능 14번]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³⁴⁾

<보 기>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못 + -되다 ² → 못되다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참 + -되다 ² → 참되다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막 + -되다 ² → 막되다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용례)	(용례)
.다리가 <u>건설되었다</u> .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유물이 <u>발견되었다</u> .	. <u>영광된</u> 자리에 서다.

- ① '-되다1'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2'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1'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2'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1'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2'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1'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2'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07년 9월 고3 11번]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³⁵⁾

<보 기>
○ 얘기를 <u>듣습니까?</u> / 얘기를 <u>듣소?</u>
○ 의자에 <u>앉아라.</u> / 빨리 밥을 <u>먹어라.</u>
○ 날씨가 <u>덥다.</u> / 날씨가 <u>덥지.</u> / 날씨가 <u>덥네.</u>
○ 비가 <u>그치겠다.</u> / 비가 <u>그치겠니?</u> / 비가 <u>그치겠구나!</u>
○ 철수가 <u>똑똑하다고</u> 생각한다. / 누가 <u>가느냐</u> 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08년 4월 고3 학평 12번] '언어 자료'를 활용하여 '-니다/는다'의 '쓰임 환경'을 탐구하려고 할 때, ㉠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36)

<보 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padding: 2px;">언어 자료</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진다, 온다, 잔다 • 본다, 운다, 만든다 •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 •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 </td> </tr> </table>	언어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진다, 온다, 잔다 • 본다, 운다, 만든다 •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 •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padding: 2px;">쓰임 환경</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뒤 • '르' 받침인 동사 어간 뒤 • (㉡) 뒤 ○-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 받침을 제외한 (㉢) 뒤 </td> </tr> </table>	쓰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뒤 • '르' 받침인 동사 어간 뒤 • (㉡) 뒤 ○-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 받침을 제외한 (㉢) 뒤
언어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던진다, 온다, 잔다 • 본다, 운다, 만든다 • 웃으신다, 막으신다, 감으신다 • 웃는다, 감는다, 막는다 					
쓰임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뒤 • '르' 받침인 동사 어간 뒤 • (㉡) 뒤 ○-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 받침을 제외한 (㉢) 뒤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p> <p>① 받침 없는 동사 어간</p> <p>② 받침 있는 동사 어간</p> <p>③ 타동사</p> <p>④ 받침 없는 동사 어간</p> <p>⑤ 타동사</p> | <p style="text-align: center;">㉡</p> <p>어미 '으시'</p> <p>피동사</p> <p>어미 '으시'</p> <p>타동사</p> <p>피동사</p> | <p style="text-align: center;">㉢</p> <p>받침 있는 동사 어간</p> <p>받침 없는 동사 어간</p> <p>피동사</p> <p>피동사</p> <p>받침 있는 동사 어간</p> |
|---|---|---|

[08년 7월 고3 학평 11번] <보기>를 통해 '접사'의 특징에 대해 학습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7)

<보 기>	
○ 군- : 군말, 군살, 군손질, 군침	
○ 헛- : 헛고생, 헛걸음, 헛돌다, 헛디디다	
○ -거리다 : 꿈틀거리다, 머뭇거리다, 글썽거리다	
○ -롭다 : 평화롭다, 자유롭다, 새롭다	

- ① 접미사를 붙여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 수 있다.
- ② 접두사 중에는 명사와 동사에 다 붙을 수 있는 것도 있다.
- ③ 접두사는 어근의 앞에 붙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한다.
- ④ 접두사는 자립성을 갖는 형태소에, 접미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에 붙는다.
- ⑤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08년 9월 모평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8)

<보 기>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희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②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③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이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④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⑤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09년 10월 학평 11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39)

<보 기 1>

● '-ㅁ/-음'에 대하여

□ 명사형 어미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형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사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어 주어를 서술하며 품사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있다.

□ 접미사 :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킨다. 파생된 명사는 서술성이 없으므로 앞에 부사적 표현이 쓰일 수 없고, 관형어가 올 수 있다.

<보 기 2>

ㄱ. 그곳에 모인 사람이 큰 **웃음**을 웃었다.
 ㄴ. 영희는 **잠1**을 **잠2**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ㄷ.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고 나니 피로가 풀렸다.
 ㄹ. 크게 **웃음**으로써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었다.

- ① ㄱ의 '웃음'은 '큰'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접미사이다.
- ② ㄴ의 '잠1'의 '-ㅁ'은 명사형 어미이고, '잠2'의 '-ㅁ'은 접미사이다.
- ③ ㄷ의 '잠'은 '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 ④ ㄷ의 '잠'은 서술성이 없지만 ㄹ의 '웃음'은 서술성이 있다.
- ⑤ ㄹ의 '웃음'은 '크게'의 수식을 받으므로 '웃음'의 '-음'은 명

[11년 6월 모평 12번]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42)

<보 기>

- **들5 [조사]** (제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9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 좀 전에 ㉡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 그래요. 그런데 ㉢ 아이들은 어디 보셨나요?
 어머니 :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희야! 빨리 ㉣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희 :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 많이들 컸구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11년 7월 학평 11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3)

<보 기 1>

[관형사형 어미]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문장을 안고 있을 때, 관형사형 어미는 안겨 있는 문장의 서술어에 붙어 그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거나 추측, 의지 등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한다.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 '-는', '-을' 등이 있다.

<보 기 2>

ㄱ. 내가 지금 읽는 책은 추향전이다.
 ㄴ. 이 사진 어제 찍은 거니?
 ㄷ.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ㄹ. 학교에 남아 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렴.

- ① ㄱ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 ② ㄴ과 ㄷ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 ③ ㄱ~ㄷ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데 제약이 있구나.
- ④ ㄷ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 ⑤ ㄹ의 '-을'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12년 수능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4)

<보 기>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켰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 /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 / *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 / *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12년 4월 학평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

<보 기>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12년 7월 학평 11번] <보기>의 '선어말어미'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6)

<보 기>

국어의 '선어말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시제와 높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기능을 한다.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 /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
 ㄷ.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그 소설을 읽겠다.
 ㄹ. 어제 보니, 철수는 소설을 읽더라.
 ㅁ.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읽으셨다.

- ① ㄱ의 '-는'은 현재임을, '-었-'은 과거임을 나타내는군.
- ② ㄴ과 ㄷ의 '-겠-'은 미래임을 나타내는데, ㄴ에서는 추측, ㄷ에서는 의지의 의미를 지니는군.
- ③ ㄹ의 '-더-'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함을 나타내는군.
- ④ ㅁ을 보니,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군.
- ⑤ ㅁ을 보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보다 앞에 나오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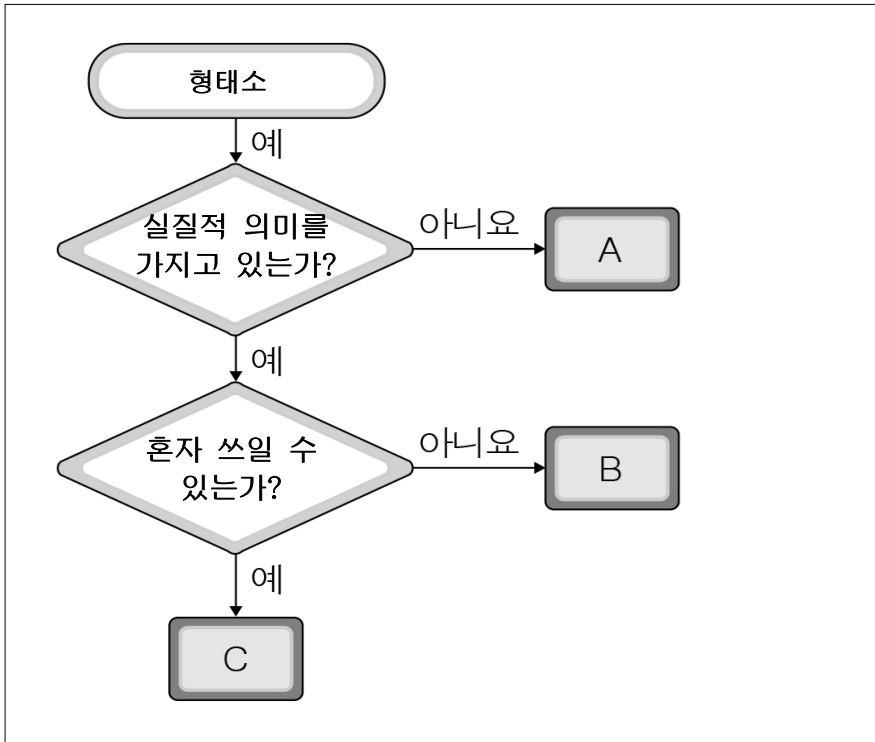
[13년 수능 11번]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7)

<보 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광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13년 4월 학평 B형 11번]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 ~ ㉣을 분류하고자 한다. A ~ 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48)



<보 기>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 ㉢ 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 ㉣ 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 하늘의 북극성이다.

	A	B	C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3년 6월 모평 B형 13번]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9)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생님께) “<u>아니요</u>, 모르겠습니다.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	---



자료	‘아니요’의 ‘요’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	--------------------------------------



문제 탐구	<p>자료에서 ‘아니요’의 쓰임을 확인한다. ☞ 읽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요’가 붙어서 된 말이다.</p>	<p>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p>
	<p>자료의 다음 사례를 통해 ‘요’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뭘 할까요?</u> 뭘 할까? • <u>어서요</u>, 빨리요. <p>☞ 단어, 어말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요’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p>	<p>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마나 기쁘<u>오</u>? 얼마나 기쁘<u>니</u>? • 일단 멈추<u>시오</u>.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div>



적용	‘그러면 안 되 <u>□</u> ’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13년 6월 모평 A형 12번]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 50)

<보 기 1>

[문 장]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음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 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 기 2>

- 그는 멋지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 ④ ㉡, ㉣

- ② ㉠, ㉣
- ⑤ ㉡, ㉣

- ③ ㉡, ㉣

[13년 7월 학평 B형 14번] <보기>의 밑줄 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51)

<보 기>

선어말어미 '-겠-'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이나 가능성, 말하는 이의 의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 ①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
-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
-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13년 9월 모평 A형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52)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요?'의 '-지요'는 ㉠에 해당한다.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14년 4월 학평 B형 15번]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53)

<보 기>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리-'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1-(3)
형태론
(단어)

단어의 형성

[05년 10월 고3 14번] 문법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4)

<보 기>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한다. 어근은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어근이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어'라고 한다. 합성어가 새로운 단어로 파생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 ① '바다', '맑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니 단일어이다.
- ② '밤낮'은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웃음'은 동사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④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⑤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09년 9월 모평 11번]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55)

<보 기 1>

'A+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쪽이 생략되더라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 2>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ㄷ.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긁다 } ⇒ 바가지이다
 ㄹ. ㉠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 ⇨ ㉡는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10년 4월 학평 12번] <보기>는 '합성명사의 의미 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56)

<보 기>

- A + B → AB : 단순한 의미의 결합 ㉠
예) 논 + 밭 = 논밭
- A + B → AX/XB : 한 쪽에만 의미 변화가 나타남 ㉡
예) 불 + 호령 = 불호령
- A + B → XY : 제 3의 의미가 생겨남 ㉢
예) 까치 + 밭 : 까치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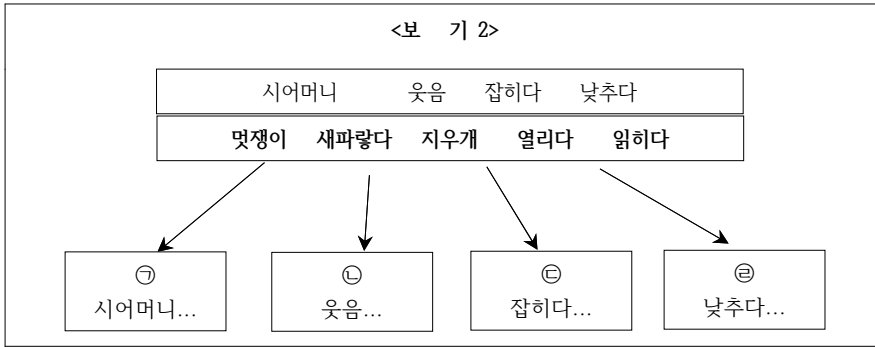
	㉠	㉡	㉢
①	칼집	돌부처	오누이
②	쥐머느리	오누이	돌부처
③	비바람	칼집	벼락부자
④	오누이	벼락부자	쥐머느리
⑤	벼락부자	돌부처	비바람

[11년 9월 학평 12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57)

<보 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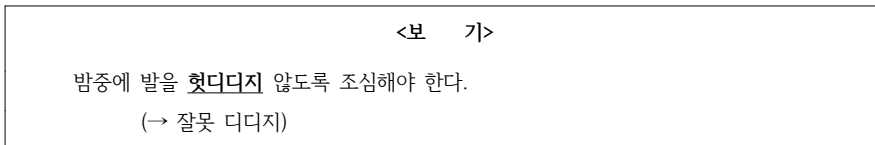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아'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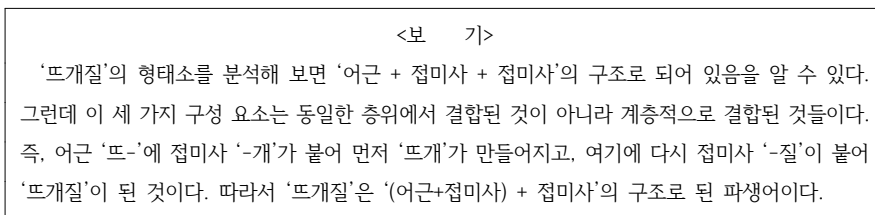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③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12년 6월 모평 12번]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 58)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뒹대어 수리했다. (→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 원형으로 젓고)

[13년 10월 학평 A형 13번]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 59)



- ① 싸움꾼
- ② 군것질
-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 ⑤ 미달이

[14년 9월 모평 A형 12번]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 60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1-(4)
형태론
(단어)

단어의 의미관계

[06년 4월 고3 14번]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를 구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61)

<보 기>

- 동음이의어 : 발음은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단어.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것.
- 다의어 :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의미상 연관성은 있지만 두 의미가 분명히 다른 것.

- ① '배를 타다', '배를 먹다', '배가 부르다'에서 '배'는 동음이의어군.
- ② '감다'라는 단어는 '머리를 감다'와 '눈을 감다'에서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음이의어군.
- ③ '먹다'는 '밥을 먹다'와 '솜이 물을 먹다'의 경우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으면서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 다의어군.
- ④ '가볍다'는 '가볍고 단단한 그릇'에서는 무게가 적다는 뜻이고, '가벼운 생각을 하지 마라'에서는 경솔하다는 뜻이므로 동음이의어로 보아야겠군.
- ⑤ '귀'는 '사람의 귀'를 지칭할 때와 '거울의 한 귀가 깨지다'에서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를 의미하는 '귀'가 있으니 이 경우에는 다의어로 보아야겠군.

[07년 3월 고3 12번] <보기1>의 원칙에 따라 <보기2>의 밑줄 친 단어를 국어사전에 수록하는 수행 평가를 해 보았다. 가장 바르게 정리한 것은? 62)

<보 기 1>

국어사전 수록의 원칙 :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는 형태는 같지만 어휘의 의미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없는 낱말로 국어사전에는 다른 표제어로 구분하여 수록한다. 반면 다의어(多義語)는 하나의 어휘가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라 하고,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달라진 의미를 '주변 의미'라 하여 하나의 낱말로 수록한다.

<보 기 2>

ㄱ. 그는 사진 동호회에 들기로 했다.

ㄴ. 오른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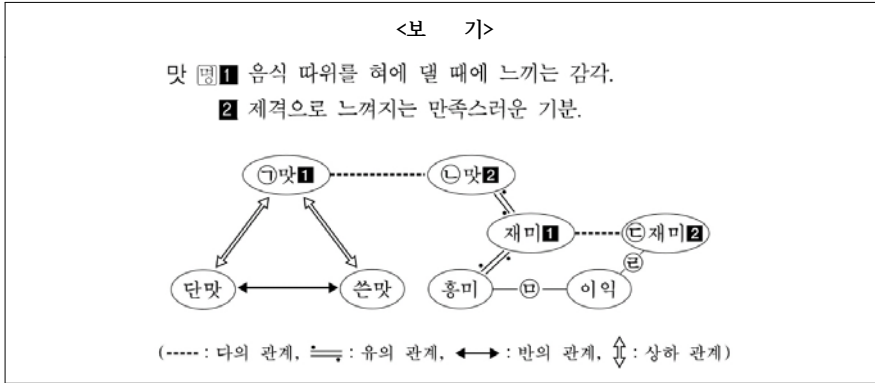
ㄷ. 몸을 깨끗하게 씻고 법당에 들었다.

ㄹ.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들고 따라오시오.

ㅁ. 낮이 안 들어 버를 베는 데 어려움이 많다.

	들다 1	들다 2	들다 3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ㄷ	ㄴ, ㄹ	ㅁ
⑤	ㄱ, ㅁ	ㄴ, ㄷ	ㄹ

[09년 6월 모평 11번]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63)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계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09년 7월 학평 12번] <보기>와 같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후, 각 단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64)

<보 기>

○ 합의/협의

ㄱ. 선거 후보자들은 상대편 비방 금지에 (**합의/협의**)했다.
 ㄴ. 참가자들은 행사 규칙을 수차례의 (**합의/협의**) 끝에 마련하였다.
 ㄷ.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그녀와 (**합의/협의**)할 의사가 없다.

○ 배부/배포

ㄹ. 합격 통지서가 학생들에게 (**배부/배포**)되었다.
 ㅁ. 개업을 알리는 광고 전단을 전 지역에 (**배부/배포**)했다.
 ㅂ. 시청에서는 산림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신청자에게 묘목을 무상으로 (**배부/배포**)하고 있다.

- ① ㄱ과 ㄴ을 보니 ‘합의’는 ‘결과’, ‘협의’는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네.
- ② ㄱ~ㄷ을 보니 ‘합의’와 ‘협의’는 ‘무엇에나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과 같이 쓰이는군.
- ③ ㄱ~ㄷ을 보니 ‘합의’와 ‘협의’는 모두 ‘와/과’가 없을 경우 다수를 뜻하는 주어가 오는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배포’는 ‘배부’와 달리 특정 대상이 있다고 볼 수 있네.
- ⑤ ㅂ을 보니 ‘배부’는 종이나 서류 외의 것을 나눠 준다고 할 때도 쓰일 수 있군.

[10년 수능 11번] <보기 1>의 ㄱ ~ 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 ~ 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65)

<보 기 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 기 2>

- a. [설령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령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b. [그 팀이 이연패를 했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 | ㄱ | ㄴ | ㄷ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11년 6월 모평 11번]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66)

<보 기>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이다. ㉠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한다. 가령 ㉠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반의어에는 ㉡ '금속', '비금속'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반의어, ㉢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의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어, ㉣ '형', '아우'와 '출발선',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어가 있다.

- ① ㉠ :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② ㉡ :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 ③ ㉢ :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이므로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④ ㉣ :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이다.
- ⑤ ㉣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방향 반의어에 포함된다.

[13년 3월 학평 B형 15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67)

<보 기>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와 같은 단어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

- ① **보다** 다희를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도시를 유통의 중심지로 본다.
- ② **듣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종종 농담을 진담으로 듣는다.
- ③ **느끼다**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 ④ **맛보다** 찌개의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
인간은 때때로 상실감을 맛본다.
- ⑤ **말다** 라일락 향기를 맡으니 봄이 온 것을 알겠다.
형사는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맡았다.

[13년 6월 모평 B형 15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68)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을】 별에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1과 바래다1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1과 바래다1 ㉠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1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의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1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한다.
- ⑤ 바래다1㉣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13년 7월 학평 A형 13번]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에 추가할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 69)

<보 기>

- 그는 관객들에게 최면을 걸고 모두 잠들게 했다.
- 정보 산언에 미래를 걸고 있었다.
-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그래.

<국어 사전>

걸다 [결:다] [걸어, 거니, 거오] [동]

-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다.
- 앞으로의 일에 대한 희망을 품다.
- _____ ㉠ _____

- ① 의논이나 토의의 대상으로 삼다.
- ②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동작을 하다.
- ③ 다른 사람이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다.
- ④ 명예나 목숨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다.
- ⑤ 다른 사람을 향해 먼저 어떤 행동을 하다.

[13년 9월 모평 A형 13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70)

갈-리다1 [동]

① '갈다1 ①'의 피동사
 ¶ 멧돌에 콩이 갈리다.

② '갈다1 ②'의 피동사
 ¶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2 [동] '갈다2'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1'을 보니 '갈다1'은 다의어겠군.
- ② '갈-리다1'과 '갈-리다2'를 보니, '갈다1'과 '갈다2'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1'을 보니, '갈-리다1'은 '갈다1'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1 ①'을 고려할 때, '갈다1 ①'의 용례로 '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2'를 고려할 때, '갈다2'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13년 10월 학평 B형 14번]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1)

<보 기>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O	O	O ㉠
감나무를	O	O	X ㉡
인내심을	O	O	X ㉢
수염을	O	X	X ㉣
첨단산업을	X	O	X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이미지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3년 수능 A형 12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2)

에 [조]

-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조]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에㉡'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③'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 ①'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 ②'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14년 3월 학평 B형 14번] 다음은 '다의어'에 관한 탐구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73)

▶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보 기>

- ㉠. 그 분은 아침에 서울로 **가셨다**.
- ㉡. 너에게 신호가 **가면** 직접 숲을 해.
- ㉢.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성적이 중간은 **간다**.
- ㉣. 그렇게 이른 시간에 친구 집을 **간** 본 적은 없다.
- ㉤.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 ㉥. 물이 어른 무릎쯤 **가는** 냇물이라 아이들이 놀기에도 적당하다.

(1) ㉠ ~ ㉥을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묶어 보자.
(㉠. _____) (㉡. _____) (㉢. _____)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다'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 _____ ㉡ _____

- ①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른다.
- ②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른다.
- ③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난다.
- ④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 ⑤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14년 7월 학평 A형 11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4)

고르다1 [동] [골라, 고르니]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돌쪼날쪼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땅을 고르다.
 ㉡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붓을 고르다.

고르다2 [형] [골라, 고르니]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숨소리가 고르다.

- ① '고르다1 ㉠'의 용례 '땅을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유의어로는 '메우다'가 가능하겠군.
- ② '고르다2 ㉢'의 용례로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고르다2 ㉣'의 용례 '숨소리가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반의어로는 '거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고르다1', '고르다2'의 활용 정보에 '골라', '고르니'로 나타난 것을 보니 불규칙 용언이겠군.
- ⑤ '고르다1', '고르다2'의 품사 표시를 보니, '악기의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동사, '치아가 고르다'는 형용사이겠군.

[14년 9월 모평 B형 14번]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5)

크다 ㉠ [형]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 / 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크다 ㉡ [동]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 ↔ 작다

작다 [형]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

- ① '크다 ㉠'과 '크다 ㉡'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정답표

각 문항의 끝에 작은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이 문항 번호입니다.

- 1) ②
- 2) ④
- 3) ①
- 4) ①
- 5) ⑤
- 6) ①
- 7) ③
- 8) ③
- 9) ④
- 10) ③
- 11) ⑤
- 12) ①
- 13) ④
- 14) ②
- 15) ③
- 16) ③
- 17) ③
- 18) ④
- 19) ①
- 20) ③
- 21) ②
- 22) ③
- 23) ②
- 24) ⑤
- 25) ④
- 26) ③
- 27) ②
- 28) ③
- 29) ①
- 30) ③
- 31) ②
- 32) ④
- 33) ④
- 34) ⑤
- 35) ①
- 36) ①
- 37) ④
- 38) ⑤
- 39) ②
- 40) ②
- 41) ⑤
- 42) ③
- 43) ④
- 44) ②
- 45) ④
- 46) ⑤
- 47) ①
- 48) ④
- 49) ③
- 50) ③
- 51) ①
- 52) ③
- 53) ⑤
- 54) ⑤
- 55) ②
- 56) ④
- 57) ⑤
- 58) ②
- 59) ①
- 60) ②
- 61) ④
- 62) ④
- 63) ③
- 64) ④
- 65) ③
- 66) ⑤
- 67) ③

- 68) ⑤
- 69) ⑤
- 70) ②
- 71) ③
- 72) ③
- 73) ①
- 74) ①
- 75) ③